

아프리카의 지역통합과 지역별 개발의제

서 상 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 I. 들어가기
- II. 아프리카 현황과 문제점들
- III.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지역통합과 지역별 협력기구
- IV. 우리나라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지역별 의제

I. 들어가기

현재 아프리카의 개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왜 지금 아프리카인 것인가? 1차 자원 의존 경제 등 독립 이후 여러 가지 초기 조건에 기인한 아프리카의 기본적인 상황이나 구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다. 비록 2000년 이후 아프리카 경제가 다른 대륙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1980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불과 2.1%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율(동기간 평균 2.7%)을 밑돌아 1인당 소득은 저하되고 경제적 빈곤이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개발 면에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쟁이나 기근, HIV/AIDS나 말라리아 등의 질병 그리고 누적 채무 등의 문제가 산적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냉전이 끝나고 아프리카를 둘러싼 국제 환경과 개혁 등 큰 변화가 생겼다. 즉 세계화(globalization)의 급속한 진전과 ODA 공여액의 감소, 빈곤 감축에 대한 개발 원조 아젠다(agenda)의 수렴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민주화 그리고 지방 분권, 재무 행정 개혁의 진전, 경제 자유화·구조 개혁의 지속 등 ‘아프리카 자신’의 변화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과 ‘아프리카 자신’의 변화가 결부되고 형성된 것은 외부적 변화압박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내부에서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를 위한 개발 이니셔티브로인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NEPAD)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륙이다. 비록 최근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빈곤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분쟁 등의 정치 문제, 대륙내의 지역·국가간 경제 격차, 빈곤 수의 증가 등 현재의 아프리카 대륙이 안고 있는 과제는 여러 가지에 걸쳐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진국 및 국제기관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개발 전략을 내세워 왔다. 2000년 유엔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내용에는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2001년 9.11테러는 세계, 특히 아프리카대륙의 빈곤 문제에 주목을 더욱 가지게 만들었다. 이는 “빈곤이 테러의 온상이 된다”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공약(commitment)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어 무엇보다도 큰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의존, 종속 구조일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선진국과의 수직적 경제 시스템은 독립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래, 선진 국가들에 대한 의존, 종속적인 경제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존(self-reliance)」과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발전(indigenous development)」이라는 두 개의 개발 이념을 언급하여 왔다. 그리고 각국의 연대를 통한 집단적 자존의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자 및 아프리카 지도자에 의해 경제적 지역 협력·통합의 중요성이 폭넓게 주장되어 왔다.

본 글에서는 왜 독립 이래 아프리카 각국이 언급한 경제적 지역 통합에 근거한 개발 공약이 기대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가? 또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정책을 계속한다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 특히 빈곤층에 정말로 혜택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에서 현재의 개발 전략의 문제점을 「자존」과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발전」의 개념과의 관련으로부터 논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의 현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아프리카 지역통합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지역에서의 개발의제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II. 아프리카 현황과 문제점들

1. 최근 아프리카 경제현황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내전이나 각종 질병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던 아프리카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3%대에 불과했던 아프리카 전체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5-6%대로 높아졌다.

석유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앙골라의 경우 2009년에 비록 일시적인 저성장을 기록하였지만, 2006~2008년까지 3년간 거의 20%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모잠비크나 탄자니아와 같이 석유 수출 실적이 없는 국가도 경제가 안정을 보이면서 6~7%의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경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물론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의 위축으로 2009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도 정체되었지만 다른 대륙에 비해 양호한 경제실적을 보이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¹⁾ 이처럼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면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아프리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글로벌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2010년 성장률은 5%로 예상되며 2011년에는 5.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표 1〉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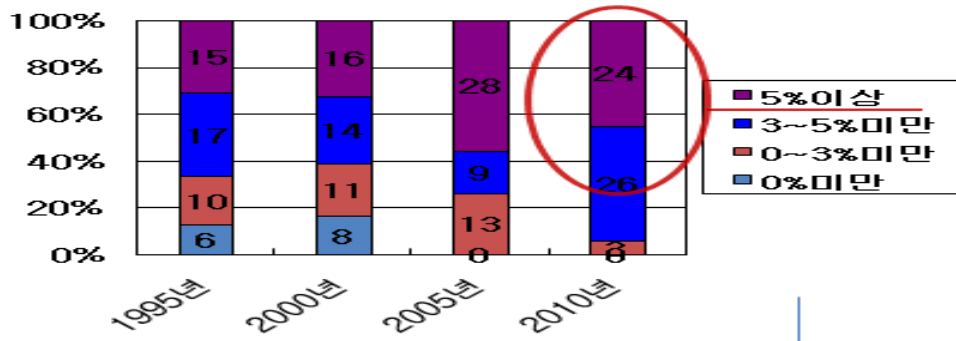
2. 아프리카 문제점들

1) 넓어지는 빈부격차와 「자원의 저주」

아프리카는 2005~2010년의 평균 GDP 성장률이 5%를 초과한 국가가 25개국에 달하고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비율도 10년 전보다 1/5 정도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 IMF, "Africa Economic Outlook 2011", (2010).

〈표 2〉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률 분포도



출처 : FAO -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2010

그러나 아프리카는 아직도 심각한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최빈국들 중 2/3(34개국)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도 전체 인구의 30%를 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경제 성장은 자원 수출에 견인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이지만 2004년 차드는 33.7%, 적도 기니는 32.7%, 2005년에 앙골라는 20.6 퍼센트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산유국으로 석유 가격과 생산의 증가와 직결되었다. 또한 정치와 정부관리가 악화된 짐바브웨는 토지개혁의 혼란이 시작되기 직전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5.4%의 GDP가 축소되었다.

원래 아프리카는 가난하지만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립 이후 아프리카는 불평등이 가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는 1960년의 0.378에서 2000년에는 0.506에 상승하였다.²⁾ 생산성이 낮은 「자급자족 경제」에서 서구 경제체제가 이식되면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근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빈국과 부국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천연 자원의 수출에 의해 국민이 가난하게 되는 「자원의 저주」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천연자원 수출로 외화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통화 가치의 급등에 의해 농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꺾이는 「네덜란드 병」이 있다. 두 번째는 자원 가격의 변동 및 매장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수출국은 장기적인 세입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조지 소로스는 자원 수출에 의존한 국가들의 관리가 취약한 점이 아프리카 「자원 저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³⁾

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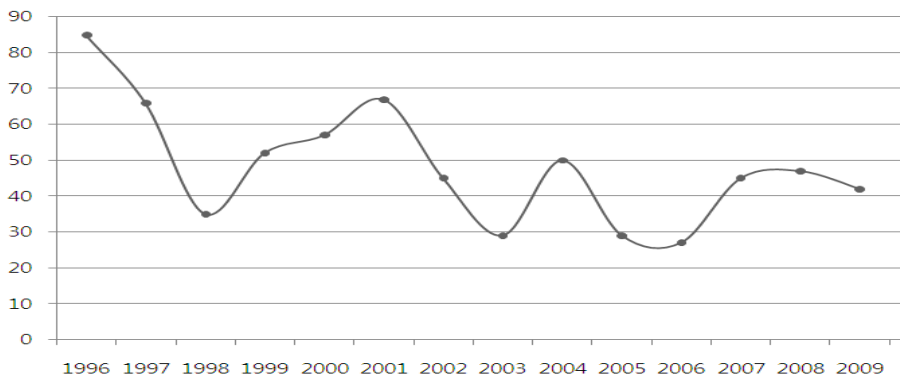
3) George Soros, "The Resource Curse", *Project Syndicate*, (July 2003).

2) 분쟁과 질병

1980년대 구조 조정의 시대 이후, 아프리카는 빈부 격차의 확대와 분쟁발생이 보다 심각한 사태로 발현하였다. 아프리카 분쟁 연구자인 윌리엄 레노는 정부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아프리카 각지에서는 「그림자 정부」가 형성되고 냉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이권을 노리는 개인(private) 집단이 내전을 양산 하였다고 분석했다.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아프리카의 분쟁 중 정부가 당사자가 된 것은 17건인데 반해 비정부 집단 간의 분쟁은 77건에 이르고 있다. 「분쟁 다이아몬드」의 사례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중서부 아프리카의 자원 밀수에 의한 수입이 무장 집단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분쟁 해결을 늦추는 원인이 되었다. 아프리카는 정부 기능의 축소가 무정부 상태를 가져오고, 국경을 넘는 활발한 자원의 거래가 분쟁을 영속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림 1〉 아프리카 정정불안 지표



자료 : Marchés Tropicaux et Méditerranéens에 기반을 두고 저자 작성

아프리카의 인적 자원과 제도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위협으로는 분쟁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의 증가도 중요한 요소이다. UNAIDS의 최신 보고에 의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2009년 세계 에이즈 감염자의 67%(2,250만), 에이즈에 의한 사망자의 75 퍼센트(120만 명)를 아프리카가 차지하고 있다.⁵⁾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을 잃은 에이즈 고아는 1,48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는다.⁶⁾ 에이즈는 국경을 넘어 사람의 이동과 접촉에 의해 광범위하게 확대해 왔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정비되고, 광물자원이 번창하여 광산이 발달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

4) Reno, W. "Clandestine economies, violence and states i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 no. 2. (2000), p.459.

5) <http://www.unaids.org/en/>

6) <http://www.avert.org/hiv-aids-africa.htm>.

가운데에서도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보츠와나의 감염률은 높고, 내전으로 교통망이 끊겼던 모잠비크나 앙골라의 감염률은 평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물론 아프리카의 지속적 성장에 있어, 농업 지원, 투자 확대, 인프라의 정비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유통의 확대는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도 광범위한 에이즈 대책과 조합시키는 형태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III.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지역통합과 지역별 협력기구

1. NEPAD와 아프리카 지역통합의 목적

1) NEPAD 설립 배경

NEPAD는 아프리카가 21세기의 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채택했다.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로 발표한 NEPAD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선진국과 국제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NEPAD는 2001년 7월 OAU 정상 회의에서 채택됐다. NEPAD는 음베키(Mbeki) 전 남아공 대통령이 1998년에 제창한 「아프리카 르네상스」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⁷⁾ 이 아프리카 르네상스에 대한 토론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전의 범아프리카주의를 재고한, 21세기 아프리카의 슬로건이 된 개념이며, 그 자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 받고 있었다.

NEPAD의 주요 내용은 주로 정치적 민주화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실현, OAU 등에 의한 분쟁의 해결, 높은 경제 성장과 실업의 감축, 민간 분야 성장과 외국 투자 실현에 의한 신 경제 정책, 지역 통합의 촉진, 환경 보호 등이다.⁸⁾ 이후 2000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대륙의 지속적 발전과 개발에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밝힌 「밀레니엄 아프리카 르네상스계획」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중에 주장된 개념은 같은 해 「아프리카부흥 계획을 위한 밀레니엄 파트너십(the Millennium Partnership for the African Recovery Programs: MAP)」으로 구체화했다. 이것은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각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 하에 완성한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세네갈에서는 압둘라이 와드(Abdoulaye Wade) 대통령이 세네갈의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오메가 플랜(Omega Plan)이라는 개발 계획을 책정했다. 거기에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를 통해 지역 및 대륙에서 합리적인 경제 개발 기반을 갖추는 것 그리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7) 서상현, 「아프리카 이해」, (서울 : 다해출판사, 2004), p.167.

8) NEPAD 홈페이지, <<http://www.nepad.org>>.

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에 실시된 구조조정프로그램(SAP)에 대해, 그 정책이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는커녕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빈곤을 더욱 강화했다며 일부 비판을 가하고 있다.⁹⁾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글로벌 시장 경제로의 참가를 재촉함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이상의 2 개의 계획, 즉 MAP와 오메가 플랜을 합체시키는 형태로 제 37차 OAU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있는 후, 2001년 7월 신 아프리카 이니셔티브(New African Initiative: NAI)가 채택됐다.¹⁰⁾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제 1차 NAI 실행 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¹¹⁾ 아프리카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15 개국의 수뇌로 구성된 의사 결정 기관에서 NAI가 명칭을 바꾸어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NEPAD)」이 탄생되었다.

NEPAD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아니라 아프리카 발전의 비전, 현존하는 문제,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자세 등을 제시한 포괄적인 문서이다. NEPAD에서 목표로 하고 언급되었던 항목은 다음과 같다.¹²⁾

① 향후 15년간 연간 7 %의 GDP 성장률 달성, ②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절대적 빈곤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 한다. ③ 2015년까지 모든 아동이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성 평등을 달성하고, 2005년까지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달성한다. ⑤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아 및 아동의 사망률을 2/3 줄인다. ⑥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임산부 사망률을 3/4으로 줄인다. ⑦ 2015년까지 보건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

또한 그 결과로서 경제 성장과 고용의 촉진, 빈곤과 불평등의 감축, 생산의 다양화, 경제 통합의 심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 NEPAD와 지역통합에 대한 비판

NEPAD의 목적과 실행에 있어 역할은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다. 그러나 NEPAD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언급되었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것은 정말로 아프리카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인가, 나아가서는 그것이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발전을 목표로 했을 것일까 등의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이 계획이 종래의 개발 이니셔티브와 다른 점은, ①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입안, 형성된 것. ② 지금까지의 아프리카 개발 전략에 대한 반성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의 확립을 언급한 것. ③ 새로운 개발접근을 채용하고, 글로벌 경제로의 참여를 목표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①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아프리카 개발 정책을 진행해온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유엔 기관의 하나이

9) ECA, "Republic of Senegal-One People-One Goal-One Faith Omega Plan for Africa", (2000), <<http://www.uneca.org>>.

10) 서상현, op, cit., p.168.

11) 아프리카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15 개국의 수뇌로 구성된 의사 결정 기관.

12) NEPAD, document, article 18, (2001). <<http://www.nepad.org>>.

고, 엄밀히 말해 「아프리카 독자적」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NEPAD가 아프리카인 지도자의 주도권 하에 작성되고 그 추진 주체가 OAU라고 말한다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중요성을 보면 그것이 「아프리카 독자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②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아프리카 경제 낙후의 원인을 식민지 정책·냉전·구조 조정 정책 및 국제 경제 시스템·각국의 경제 정책의 미비 등으로 비판한다면, 과거의 반성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경제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¹³⁾ 또한 NEPAD 문서에는 「각 국가들과 각 지역의 우선 사항·개발 계획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¹⁴⁾ 그러나 실제로는 NEPAD의 구상, 작성에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③의 아프리카 글로벌 경제에의 통합 지향이 NEPAD의 최대 특징으로 되어 있다.

NEPAD는 아프리카 대륙을 글로벌 경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경제의 낙후 원인을 식민주의, 냉전, 국제경제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잘못된 경제 정책 등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경제의 재건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¹⁵⁾

그러나 NEPAD는 역내의 연구자나 NGO를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아프리카인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경제계와의 의논에 의해 정책을 책정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접근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는 계획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개발 전략 책정에의 참가 중요성은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 지도자들의 교섭을 통해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국민들은 그 프로세스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한 NEPAD가 아프리카의 경제 자립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ODA에 의거하여, 새로운 ODA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상황이다.¹⁶⁾ 아프리카의 자립성을 강조한 반면, 실제로는 선진국이나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원조 의존 체질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의 대부분은 아프리카대륙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지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NEPAD가 아프리카 발전의 원동력을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선진국에서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고, 「아프리카를 다국적기업에 저가로 판매한다」라는 슬로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항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NEPAD가 선진국과의 무역 확대, 직접 투자 도입을 축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진국에 대한 의존, 종속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강하다. 아데데지(Adedeji)는 2002년 4월 케냐에서 열렸던 아프리카 포럼에서 NEPAD에 대해 「자력갱생」, 「지속성」, 「발전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의한 이익의 공정하고

13) NEPAD, op. cit., article 18.

14) Ibid. article 47.

15) Ibid. article 90-91.

16) Ibid. article 152.

평등한 분배」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잊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⁷⁾ 또한 원조에 있어서 국제사회 선진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대로는 아프리카 경제의 의존, 종속 체질을 더욱 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민들의 새로운 궁핍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NEPAD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공통되고 있는 것은 그 패러다임이나 모델 자체가 세계은행이나 IMF가 책정한 SAP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 아프리카 주요 지역공동체 현황

NEPAD가 아프리카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지만, 아프리카는 53개국으로 구성된 큰 대륙이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접근함에 있어 개별국가들을 중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와 정치체제 그리고 경제상황 등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 따라서 아프리카개발을 분석함에 있어 지역별 혹은 권역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특징들을 살펴본다.

1) 서부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ECOWAS)

ECOWAS는 서부아프리카 15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지역통합 기구로 1975년 5월 28일 창설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아부자(Abuja)에 본부를 두고 있다.¹⁸⁾ 이 기구는 서부아프리카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각국의 독립 이후, ECA의 주도로 지역 경제협력기구 창설 흐름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집단적 자력갱생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적으로는 EU를 모델로 한 기구로서 탄생했다. 현재는 역내 경제 활동의 전 분야에서 협력과 개발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공업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인력·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 경제 정책의 조정, 가맹국간에 역외 공통관세의 설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공동 시장의 창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⁹⁾

ECOWAS 설립의 기본적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서아프리카 공공정책에 관한 3가지 중요한 목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첫째, 서아프리카 제국은 외부세력에 의한 경제적 지배 및 착취에 대항한 투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그러한 투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약소국들은 외부적 지배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빈곤의 경감 및 궁극적인 제거는 튼튼한 경제기반에 달려있다. 셋째, 국가별 경제발전의 한계성 때문이다.

17) Adebayo Adedeji, "Key Note Address..From the Lagos Plan of Action to the New Partnershipfor African Development and From the Final Act of Lagos to the Constitutive Act: Wither Africa?",(African Forum for Envisioning Africa),(2002), p.8 <<http://www.uneca.org>>

18) <http://ecowas.int/>

19) <http://ecowas.int/>

독립 후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발전 노력에 실패하였다. 이는 협소한 국내시장만을 기초로 발전전략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억2천 명의 소비자를 포함하고 있는 대 단위 경제공동체의 설립은 생산 활동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이어져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 있다.

ECOWAS의 주요 수출 상품은 원유, 석유 정제품 등의 에너지 제품이나 금,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등의 광산 자원 그리고 코코아 커피, 땅콩류 등의 농업 제품이다. 또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COWAS는 최근 풍부한 천연 자원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선진 다국적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빈부격차와 빈곤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1967년 6월 1일 통신, 재정, 상업,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 서비스의 협력을 위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세 국가가 협력하여 만든 경제공동체 기구이다.²⁰⁾ 이 공동체는 1961년 동아프리카 공동 서비스 기구로써 조직되었으며 동아프리카 공동체는 초기의 친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우호적인 발전관계를 지속하였다. 회원국 세 국가들은 모두 영국의 통치를 받았으며 독립 때 까지 엄격한 국가 간 제도들이 이미 존재했었다.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망속에 1967년 동아프리카 공동체 조약이 15년간의 기한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아프리카 공동체는 1977년 12월 조약이 파기되었다. 정치적으로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케냐의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와 아민과도 비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요인 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그 기구의 붕괴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었다. 케냐의 우월한 산업능력은 두 나라에 비해 상대적 이점이 있었다. 케냐가 자본주의를 강조하였던 반면, 탄자니아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아민 하의 우간다 경제는 침체되어 갔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마침내 1977년 해체되었다.

그러나 1981년 1월초 세 국가의 대통령이 캄팔라에서 회동한 이래 이들 세 국가는 1983년부터 새로운 협력방안을 계속 모색해 왔었다. 다시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로서 1993년 동아프리카협력기구가 발족되었다. 이후 이 기구 하에서 3개국의 정상들은 다방면의 걸친 협력을 모색한 끝에 2000년 동아프리카공동체가 다시 설립되었다. 2001년에는 동아프리카입법의 회와 동아프리카재판소가 창설되었다.²¹⁾

또한 이들 회원국들의 관세동맹이 2005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관세동맹으로 세 나라 간의 교역에 있어서 원료에는 무관세가, 반가공품은 10%의 세율이, 완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비교적 제조업이 발달한 케냐에서 우간다와 탄자니아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5

20) <http://www.eac.int/>

21) 국제지역정보 제9권 2호(통권 139호), “동아프리카/관세동맹의 발효와 동아프리카 지역 통합”, 2005.2.1

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가적인 관세가 부과된다. 2007년에 르완다, 부룬디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는 남부아프리카 개발조정협의회(SADCC)의 후신으로 남부아프리카 정부와 국민들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탄생하였다.

1980년에 탄생한 SADCC는 1992년 7월 17일 회원국 정상들이 나미비아 윈트훅(Windhoek)에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종식되어감에 따라 남아공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남아공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그간 회원국간 역내경제조정차원에 머물던 SADCC의 역할을 전환하여 지역 경제통합 및 공동발전에 목표를 두는 SADC창설에 합의하였다.²²⁾

이와 같이 이름을 변경한 SADC에는 1994년에 남아공이, 1995년에 모리셔스가 각각 가입하였고, 1998년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세이셸이 가입하여, 1990년 가입한 나미비아와 더불어 현재 15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립된 SADC는 그 기본조약에 SADC의 설립목적으로 첫째, 역내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퇴치 및 생활수준의 질적인 향상 도모 지역통합을 통한 사회적 이익 증대, 둘째, 역내 공통의 정치적 가치 및 시스템들의 발전, 셋째, 역내평화와 안전보호 및 제고, 넷째, 역내 및 회원국의 각종 프로그램간의 상호 보완성 유지, 다섯째, 역내 각종 자원 및 고용의 생산 활용의 극대화 및 환경의 효율적 보호, 여섯째, 역내 주민간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친밀성과 유대의 장기적 강화 및 통합 등이 그것이다.²³⁾

SADC 회원국들은 그간의 남부아프리카의 경제적 후진성을 역내 경제협력 및 통합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남부아프리카국가들의 공동의 번영 및 평화가 실현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SADC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IV. 우리나라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지역별 의제

1.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2006년과 2009년에 개최된 한-아프리카개발협력포럼에 잘 나타나 있다.

22) <http://www.sadc.int/>

23) <http://www.sadc.int/>

처음으로 개최된 2006년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까지 2006년 보다 세 배로 늘리고 향후 3년 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초청,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봉사단과 의료단 파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해소 사업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관세, 무쿼터 수입품목을 확대하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을 구성하는 등 10대 협력지원 방안을 밝혔다.²⁴⁾

또한 2009년 개최된 제 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는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우리 정부의 대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까지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를 2008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억 달러로 증액, 아프리카가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공중보건 서비스 분야,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10가지 항목 하에 기술전수, 인력파견, 프로그램 협력,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개발 협력에 합의 하였다.

개발 의제 요지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식을 기존의 자금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장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른바 경제 성장을 동반한 개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2. 아프리카 지역별 개발의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크게 지역별 공동체가 있다. 아프리카를 접근할 때에는 이들 지역별 혹은 권역별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가 국가 수가 많고 또한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권역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개발의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① 서부아프리카 지역개발의제

서부아프리카는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오일머니 유입으로 많은 인프라건설과 에너지자원 개발이외의 다양한 산업 요소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세네갈을 중심으로 가나, 기니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세네갈의 와드 대통령은 벼농사를 통해 세네갈의 식량자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24) <http://www.news.go.kr>.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원조를 받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 11월 한-아프리카 포럼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와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농업 SOC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네갈의 식량자급계획인 ‘GOANA’정책²⁵⁾의 성공을 위해 한국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세네갈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특히 부족한 관개시설 확충과 우량 농지 조성, 경쟁력 있는 농민 후계자의 육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국농어촌공사와 KOICA 등을 통해 인프라 개발 및 농지조성사업과 농식품 가공단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의 JICA는 말리, 나이지리아 등에서 대규모 관개 지구의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나에서 소규모 농업 진흥 계획 등 소규모 농민 참가형의 벼농사 협력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개시설 개발과 병행하여 우량 품종의 도입, 재배 관리, 수확 후 처리, 유통, 마케팅 등의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모든 것을 일본의 협력으로 커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농업 연구협의 그룹(CGIAR)산하의 국제 농업연구 기관과 다른 원조국과의 제휴를 통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형 플랜트 사업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고용효과는 커지만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부 중소기업들과 직업훈련원이 공동으로 진출할 경우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동시에 생필품 수입대체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개발에 힘써야 한다.

② 동부아프리카 지역개발의제

동부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로 관광산업이나 농업 등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케냐를 제외하고는 아직 1인당 소득에서 세계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혹은 농업을 식량자원 이외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 케냐 정부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입 증대를 할 수 없고 가난한 농민들도 적지 않다.

25) GOANA은 Great Offensive for Food and Abundance로 2015년까지 세네갈이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계획을 말함; <http://allafrica.com/stories/200805070623.html>.

JICA는 ‘능력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구소’(AICAD: African Institute for Capacity Development)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민들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AICAD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북부 주자(Juja)소재의 조모케냐타 농공 대학(Jomo Kenyatt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에 본부를 두고, 기술 개발에 의한 아프리카의 빈곤 감축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²⁶⁾

AICAD는 부가 가치의 기술 연수를 2009년 11월부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농업 종사자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원재료 보다 값이 비싸고, 품질 기한이 긴 제품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우유를 치즈나 버터 등의 제품으로 가공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풍부한 과일들을 이용하여 주스를 만드는 가공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보다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또한 동부아프리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대체에너지로 태양열, 지열 등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풍부한 농지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사업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200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아프리카는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유휴지가 있다.²⁷⁾ 즉 아프리카는 광범위한 유휴 농경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바이오연료 농장개척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케냐와 르완다는 IT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이동통신 보급률이 이미 60%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동통신을 통해 은행업무와 보건업무 등을 함으로써 빈곤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르완다의 경우도 카가메 현 대통령이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아프리카의 IT 허브 국가로 만들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르완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노트북을 이용한 수업이 등장하였다.

③ 남부아프리카 지역개발의제

남부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지만,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농업과 광물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다. 최근 남부아프리카 국가들 중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인데, 이는 농업의 발전과 광물자원개발 등의 때문이다.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모잠비크 농업발전을 위해 현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영농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KSP는 수원국

26) <http://aicad-taku.org/>

27) OECD, 2007.

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정책 실무자들의 교육과 연수에 기초한, 한국형 통합 경제개발 정책 컨설팅 사업이다. KSP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서 추진되어왔던 사업이다.

특히 세계 최빈국에서 최단기간 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국가로서 우리의 고유한 경험이 개도국 경제 성장에 효과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기초로 실증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 컨설팅이라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화하여 일률적으로 개도국에 수출하겠다는 위험한 사고에서 우리의 경험에 기반을 두지만 각 나라의 요청에 맞게 대상국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사업이라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모잠비크에서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가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²⁸⁾

〈표 3〉 한국의 아프리카 KSP 사업²⁹⁾

구 분	대상국가
2006년	알제리
2008년	모잠비크, 알제리
2009년	리비아, 가나, 알제리
2010년	DR 콩고, 가나, 카메룬, 탄자니아, 적도기니

그러나 ‘한국형 경제발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금처럼 요청에 의한 컨설팅의 방식보다 다원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형 원조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현재 컨설팅 결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한국이 IMF로부터 제안 받았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을 하였고, 우리나라 ODA시장의 개방에 따른 선진국 컨설팅 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KSP사업이 보다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연구의 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연구의 축적은 고사하고 정부 간에 가지고 있는 지역별 연구와 정보자료조차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KSP와 같은 패키지형 사업은 다른 여러 공여사업과의 연계성들이 강조되는 만큼, 기존 ODA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8) (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모잠비크 지식공유사업 현지수요조사 실시”, http://kds.re.kr/bbs/bbs/board.php?bo_table=whatsnew_kor&wr_id=43에서 검색.

29) 한국경제신문, “1달러 투자해 10달러 빼먹어...‘차이나프리카’에 균열”. 2010. 5. 25일자,

④ 일본의 아프리카개발 주요 의제

일본은 TICAD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의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열린 제4차 TICAD를 통해 일본의 아프리카 주요 개발 의제는 아프리카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기후변화 대책 등이었다.

최근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아프리카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사회 인프라 개발, 농업 생산량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아프리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아프리카는 아직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절대적인 빈곤상황으로 이를 타개해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빈곤 퇴치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밖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였는데, 최근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방안 논의와 특히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홍수·가뭄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V. 나가기

아프리카에 있어서 지역 통합 정책은 그 숭고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지역주의가 대두한 시대에 유럽에서의 경제 협력·통합이 심화되어 아프리카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적 관측이 많은 연구자 가운데에서 공유되고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만이 앞서고 실질적으로 대륙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진국에의 의존·종속 관계를 해소하기는커녕, 보다 심화되었고 독립 당초의 발전 목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통합의 목적과 결정의 변화일 것이다. 이전에는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 경제 협력·통합이 목표로 되어 왔지만, 어느새 목적이 FDI 유치로 되고, 그 때문에 지역 통합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자력갱생의 발전이나 「아프리카 독자적인 발전」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통해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토착 기업을 희생물의 한 형태로, 보다 강력한 다국적기업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은 개발도상국간의 지역 통합이 활발했던 60년대 이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P로부터 NEPAD로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 전략은 “아프리카인들이 역내의 천연 자원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본래의 역내 발전의 방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 가진 많은 풍부한 자원을 스스로의 경제 활동에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을 선진국에 수탈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과의 수직적 경제 관계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록 FDI 유입과 천연자원 수출에 의해 GDP가 증가했더라도 그것들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발전’이라 할 수 없다.

특히 GDP와 GNI의 괴리 및 GNI의 불평등 분배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GDP 성장률 중시의 개발 목표에도 큰 위험이 내포하고 있다. 아데데지(Adedeji)는 아프리카와 같은 경제 구조를 볼 때 GDP에 의한 현혹된 경제 성장물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 있다. 그는 빈곤감축에 회의적이고 아프리카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의존형 경제를 자력 경쟁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NEPAD는 7%의 GDP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빈곤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지표로 연결된 것은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FDI 유치에 근거한 개발 전략은 GDP 성장을 의식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경제 성장 및 빈곤의 해소로 간주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또한 경제 기반이 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연으로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SAP로부터 NEPAD까지 계속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시의 경향은 아프리카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프리카는 현재 NEPAD를 중심으로 아프리카경제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프리카의 경제 종속체제를 벗어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아프리카는 지역별 혹은 권역별 공동체를 중심으로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정치구조와 자연환경 그리고 지리적 인근성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아프리카 개발전략도 이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개발의제를 발굴하고 협조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서상현, 「아프리카 이해」, (서울 : 다해출판사, 2004).

한국경제신문, 2010. 5. 25일자, “1달러 투자해 10달러 빼먹어...‘차이나프리카’에 균열”.

국제지역정보 제9권 2호(통권 139호), “동아프리카/관세동맹의 발효와 동아프리카 지역 통합”, 2005.2.1

(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모잠비크 지식공유사업 현지수요조사 실시”,

http://kds.re.kr/bbs/bbs/board.php?bo_table=whatsnew_kor&wr_id=43에서 검색.

2. 국외문헌

Adedeji, Adebayo, “The Monrovia Strategy and The Lagos Plan of Action: Five Years After,” in Adebayo Adedeji and Timothy Shaw (eds.), *Economic Crisis in Africa*, (Lynne Rienner Publishers, 1985).

Adedeji, Adebayo, “KEYNOTE ADDRESS.. From the Lagos Plan of Action to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and From the Final Act of Lagos to the Constitutive Act: Wither Africa?” (The African Forum for Envisioning Africa, April, 2002).

ECA, “Republic of Senegal-One People-One Goal-One Faith Omega Plan for Africa”, (2000), <<http://www.uneca.org>>.

FAO -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2010.

George Soros, “The Resource Curse”, Project Syndicate, (July 2003).

IMF, “Africa Economic Outlook 2011”, (2010).

Reno, W. “Clandestine economics, violence and states i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 no.2. (200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NEPAD 홈페이지, <http://www.nepad.org>

NEPAD, document, article 18, (2001). <http://www.nepad.org>

<http://www.unaids.org/en/>

<http://www.avert.org/hiv-aids-africa.htm>

<http://ecowas.int/>

<http://www.eac.int/>

<http://www.sadc.int/>

<http://www.news.go.kr>

<http://allafrica.com/stories/200805070623.html>

<http://aicad-taku.org/>